KAITNEWS

제6회 정보통신벤처창업 경진대회 사업설명회 및 벤처특강 개최

KAIT는 지난 8월 2일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제6회 정보통신벤처창업 경진대회 사업설명회 및 벤처특강'을 개최했다.

이 행사에서는 ▲파이오링크의 조영철 소장이 창업성공 사례를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송학현 팀장이 정통부의 IT중소벤처기업 지원제도를 ▲안티웨어 신동준 대표가 제안서 작성요령을 각각 소개했다.

파이오링크는 L4/L7스위치 시장에서 노텔네트웍스(알테온)와 라드웨어 등 다국적 기업들과 경쟁하는 몇 안되는 토종 기업으로, 2008년 세계 인터넷 트랙픽 관리(ITM, Internet Traffic Management) 시장에서 선도 기업이 된다는 포부로 뛰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파이오링크의 정보통신벤처창업경진대회 수상에서부터 성공에 이르기까지의 생생한 창업성장기를 소개하였으며 2000년 우수상을 수상한 안티웨어 신동준 대표의 제안서 작성요령과 예시를 보여줌으로써 참가자의 이해를 도왔다.

한편 '정보통신벤처창업경진대회'는 1999년 이래로 지금까지 총 173명의 수상자를 배출한 국내 최대 규모의 벤처 창업 대회다.

일반인들이 창업아이디어 등을 제안하면 엄격한 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정하고, 수상자에게 상금은 물론 창업교육과 창업지원을 해준다.

KAIT 김춘석 실장은 "이번 대회는 상금을 인상하고 사업자 지원 혜택을 늘린 게 특징"이라고 말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1등 1명에게 2천만원, 2등(최우수상) 2명에게 1천만원, 3등 5명에게 500만원, 4등 12명에게 각각 300만원이 수여된다.

1 차 관문을 통과한 120명 모두에게 특허지원 등 사업화 지원혜택을 주기로 한 것도 눈길을 끌고 있다.

〈문의〉 IT산업지원팀(02)580-0524

한국IT리더스포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성경륭 위원장 초청 조찬회 개최

한국 IT산업을 이끌고 있는 산 · 학 · 연 핵심 리더들의 모임인 한국IT리더스포럼 8월 조찬회가 지난 8월 17일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8월 조찬회에서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성경륭 위원장이 '상생과 혁신의 국가재도약 플랜'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성경륭 위원장은, '혁신주도형 발전 패러다임에 기초하여 국가 및 국토운영의 틀을 획기적으로 개조하여 국민통합과 국가 재도약 달성'이라는 국가 재도약의 비전과 방향에 대하여 설명했다.

먼저 그는 지역교육과학기술기업정부 등 5대 분야에서 혁신주도형 발전 패러다임(innovation-driven paradigm)으로 우리사회의 구조적 한계를 탈피하고 질적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두 번째는 적극적 지방화 전략으로 대내적 발전역량을 강화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신행정수도 건설, 균형발전정책(낙후지역 대책, 지역혁신체계 구축, 전략산업 육성), '분권과 자율'에 기초한 중앙과 지방의 파트너쉽 구축 등의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세 번째는 적극적 세계화 전략으로 대외경쟁력 강화를 도모해야 하며, 이는 수도권의 재정비, 동북아 공동번영을 선도키 위한 물류금융 등 경제중심기능 강화,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육성을 통한 경쟁력 높은 혁신클러스터 육성 등을 통하여 구현될 수 있음

KAITNEWS

을 강조하였다.

또한 이날 조찬회에서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충청권 신행정수도 건설과 관련하여, 많은 질문과 토의가 이루어 졌다. 특히 전국적인 신규 IT산업 단지 건설 등에 대하여도 상당한 관심 속에서 '바람직한 IT산업 단지 건설' 등에 대하여 논의하는 토론의 장이 되었다.

〈문의〉 한국IT리더스포럼 사무국(02-580-0534)

부산 ITU텔레콤 아시아 2004 참가

KAIT는 9월 6일부터 11일까지 6일간 27개국 224개 업체가 참가한 가운데 부산 BEXCO에서 열리는 국내 최대 규모의 IT 종합 기술 경연장인 '부산 ITU텔레콤 아시아 2004'에 참여한다.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주최하고 정보통신부,부산광역시, 부산 ITU 텔레콤 아시아 2004 조직위원회가 주관하는 '부산 ITU텔레콤 아시아 2004'는 '미래를 이끄는 아시아(Asia Leading the Future)'를 주제로 다채로운 전시 행사와 포럼으로 짜여질 예정이어서 벌써부터 업계 안팎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또한 미국의 루슨트 테크놀로지스, IBM, 퀄컴, HP, 인텔, 시스코시스템즈, 썬마이크로시스템즈, 알카텔, 인텔샛 등과 일본의

NTT 도코모, NEC, 교세라, 히타치, 파나소닉, 산요, 샤프, 도시바, 중국기업으로는 ZTE, 차이나모바일, 화웨이 테크놀로지스 등이 전시에 나서 국제 전시회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

한국 기업으로는 삼성전자, LG전자, SK텔레콤, KT, 하나로텔레콤 등이 참여하며, 특히 한국관에는 세원텔레텍, 청호정보통신, 단암전자 등 모두 55개사가 참여하여 이동통신, 방송, 소프트웨어, 인터넷, 게임 등을 전시한다.

협회에서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협회 홍보와 아울러 이레전자, 삼성네트웍스, 넷피아, 한국정보인증, 삼성네트웍스, 한국경제신문, 이레전자, (주)ASB 등 회원사들의 홍보도 같이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청 · 철도청과 분실핸드폰 찾아주기 업무제휴 체결

KAIT 핸드폰찾기콜센터는 효율적인 분실핸드폰 주인 찾기를 위하여 경찰청 및 철도청과 업무제휴를 체결하였다.

KAIT는 이번 경찰청 및 철도청과의 업무제휴를 통해 분실핸드폰을 습득했을 경우 우체국, 경찰서 및 철도청 등으로 손쉽게 신고 · 접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이에 따라 보다 많은 분실자에게 신속하게 핸드폰을 찾아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KAIT는 우체국, 경찰청 및 철도청에 이어서 지하철, 항공, 항만 등 전국 유실물센터와의 업무제휴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KAIT는 1999년 핸드폰찾기콜센터를 개설하고 정보통신부와 이동통신사업자 3사와 함께 국가통신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환경오염방지 및 건전한 통신문화 정착을 위하여 '분실핸드폰 찾아주기 캠페인'을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30,000여 명에게 핸드폰을 찾아주고 있다.

〈문의〉 핸드폰찾기콜센터(02-3471-1155)
www.handphone.or.kr ARS.060-7000-550

협회 회원사, 인력개발센터 시행 자격검정 응시 혜택

KAIT 부설 한국정보통신인력개발센터는 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자격검정 시험 응

KAITNEWS

시시 다양한 혜택을 주기로 결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협회 회원사 지원제도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이번 자격검정 시험 혜택은 '회원 기업의 응시 인원이 50명 이상일 경우 출장시

험 시행', '시험정보 및 일정안내 뉴스레터 발송', '표준교안 및 동영상 교육자료(CD) 제공', '사내교육을 위한 강사 무료지원(단, 응시 수수료 할인 혜택은 제외 됨)', '연간 응시 인원이 300명이상일 경우 해외전시회(컴덱스 등) 기회 부여(1명)', '협회 시행 시험 응시시 응시 수수료 할인(20%)' 등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정보통신인력개발센터 홈페이지(www.ihd.or.kr)를 참조하면 된다.

외국인 실명확인 중개서비스 개시

KAIT는 그동안 주한 외국인이 국내 인터넷서비스(포털, 홈쇼핑) 이용시 사업자에 의한 실명확인 절차상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7월 1일부터 출입국관리소의 외국인 DB를 중개하여 인터넷사업자가 이를 활용, 외국인 실명확인을 할 수 있도록 정부와 사업자를 연동하는 '외국인 실명확인 중개서비스'를 개시했다.

이 서비스는 외국인 등록정보(실명, 등록번호 등)를 보유하고 있는 법무부 출입국관리소로부터 외국인 등록DB(실명, 등록번호)를 제공받아 협회에서 해당 사업자에게 중개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이에 따라 주한 외국인 가입자를 받고 있는 사업자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협회와 연동하여, 실명 조회를 거치면 된다.

한편 서비스 구현을 위하여 협회는 지난 2003년 10월 정부(법무부, 정보통신부)로부터 서비스 중개기관으로 선정되어 서비스 구현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지난 6월 23일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와 협약을 체결, 7월 1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다.

그동안 국내 주재 외국인들은 국내의 다양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가입자체가 불가능하여 서비스 이용에 접근하지 못했다.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국인등록정보(실명, 등록번호)의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였다. 외국인은 재외국민거소신고자, 외국국적동포거소신고자 등으로 포함하며, 등록정보는 성명 영문알파벳 40자, 등록번호 16자리(스페이스 포함)로 구성된다.

또한 출입국에 등록하는 (변경)데이터에 대한 신뢰성 향상을 위해 법무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가 보관하고 있는 외국인 등록정보(실명, 등록번호)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해야 한다.

KAIT에서는 동 서비스 구현을 위하여 협회와 법무부간 시스템 테스트(소켓프로그램/조회용)를 주 1회 이상 실시하고, 정보보안을 위하여 법무부-협회간 전용회선(폐쇄망)을 설치하였으며, 협회 내부망의 방화벽(수호신SW)이 허용되지 않은 데이터 흐름(비인가 패킷)을 차단시키게 된다. 또한 실제로 이용 사업자에게 동 서비스 구현을 위하여 협회와 사업자간에는 인터넷망을 이용한 암호화 소켓통신을 활용하게 된다.

KAIT는 이 서비스가 법무부, 정보통신부 등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시행하는 서비스인 만큼 주한 외국인이 향후 국내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뿐만 아니라, 재외 동포들도 국내의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서비스 이용방안을 확대, 마련할 계획이다.

〈문의〉 KAIT 신용사업팀(02-580-0571~3)

KAITNEWS

한국IT리더스포럼, 청와대 박기영 정보과학기술보좌관 초청강연

한국IT리더스포럼 7월 조찬회가 지난 7월 20일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7월 조찬회에서는 청와대 박기영 정보과학기술보좌관이 '국가기술혁신체계(NIS) 구축' 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박기영 보좌관은 이 날 "과학기술적 마인드 확대로 전문가가 존중받고, 합리적인 사고와 시스템이 작동하는 투명 · 건전하고 안전하며 상식이 통하는 사회체제 혁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과학기술을 국정운영의 중심축으로 확대 적용시키기 위한 국가기술혁신체계(NIS) 구축을 역설하였다 .

또한 제조업을 기반으로 한 지식기반서비스사업의 부가가치 창출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서는 현재 제조업의 형태를 고부가가치화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국가가 연간 적지 않은 예산을 R&D사업에 투입하는데 비하여 연구결과를 사회의 가치있는 성과로 적용하는 시스템이 미약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혁신을 주창하였다.

박 보좌관은 다양한 통계자료를 제시하면서 강연을 이어갔는데, 특히 한국의 10대~30대 기업 중 이공계 출신 CEO의 점유비율을 역설하면서 이공계 출신의 인력양성에 대한 지속적인 제도개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국민적 합의를 필요로 하는 국가기술혁신체계(NIS)는 5대 핵심 정책 목표와 30개의 세부추진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날 조찬회에서는 세부추진과제 등에 대한 상세설명이 있었다.

〈문의〉한국IT리더스포럼 사무국(02-580-0534)

유라시아 최대 IT전시회 대거 참가

KAIT는 정보통신부가 지원하고 한국정보통신수출진흥센터(원장 조성갑)의 협조를 받아 유망 국내 중소 정보통신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하여 8월 31일부터 9월 5일까지 6일간 터키(이스탄불)에서 개최된 'CeBit Bilisim Eurasia 2004' 전시회에 국내 중소IT 업체 10개사의 참여로 한국공동관을 구성하여 참가했다.

이번 전시회는 원우전자통신, 알파트로닉스, 펜맨, ASB, 티웍스, CSE, 모모웹 등 10개 중소기업이 협회 주관 한국관에 참가하여 약 500만불의 수출상담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CeBit Bilisim Eurasia 2004 전시회는 지난해 전 세계 64개국 752개 업체가 참가하여 유무선 통신제품, 방송위성통신, 이동통신장비 및 부품 등 최신기술과 제품들을 출시하는 등 유라시아 최대 규모의 정보통신 전문 국제전시회이며, 올해 국내에서는 한국관을 비롯하여 삼성전자, LG전자가 별도의 독립관으로 참가한다. 또한 터키 및 주변 지역 바이어의 분포도가 높은 전시회로서 유라시아 진출을 희망하는 독일,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중국 등 세계 8개국에서 국가관을 구성참가하여 각 국의 신기술 홍보의 장으로 활용된다.

한편 터키는 인구 7천만명중 이스탄불에만 1,000만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인접한 8개국에는 IT에대한 잠재적인 고객이 2억5천만명이 분포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또한 외국기업들의 성업적인 거래 활동 및 투자에 적합한 지형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다는 점과 최근 경제 성장 6% 가운데 특히 IT시장은 약15% 성장을 가져왔다는 점이 국내 기업들에게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는 평이다.

〈문의〉 해외사업팀 (02-580-0582)